



# 봄맞이 독서, 이 책 어때요?

미래학자들은 향후 10년은 실로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고 말한다. 낙관만 하고 있기에는 우리 앞에 펼쳐진 시간은 절체절명의 골든타임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21세기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사회 각 부분에 쌓여 있는 적폐를 일소하고 우리 사회를 혁명에 가깝게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한 연유에 21세기의 주인공인 청년 세대에겐 되돌려 주어야 한다.

‘인간학’ 전공의 인문학자이자 베스트셀러 저자인 김경집이 ‘앞으로 10년, 대한민국 골든타임’(들녘)에서 주장한 내용이다. 미래가치는 공허한 거대 담론보다 구체적이며 실천적인 삶 속에서 구현된다는 것이다.

김경집의 ‘앞으로 10년, 대한민국 골든타임’이 전남도립도서관이 ‘2018 올해의 책’ 일반 비문학 부문에 선정됐다.

전남도립도서관(도서관)은 최근 ‘올해의 책’ 선포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책 읽는 문화 확산에 나선다.

특히 이번 ‘올해의 책’은 각 부문별로 선정돼, 다양한 연령층과 독자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는 데 특징이 있다. ‘책의 해’인 올해는 독자들이 책을 매개로 독서 경험을 공유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의 책 어린이 부문은 강정연 작가의 ‘분홍문의 기적’(비룡소)이 선정됐다. 책은 가족의 죽음 뒤에 오는 상처와 슬픔을 판타지 형식으로 담아낸다. 교통사고로 엄마를 잃은 아빠와 아들이 날개 달린 엄지 공주와 같은 모습으로 돌아온 엄마와 72시간

## 전남도립도서관 ‘올해의 책’

### 다양한 연령·부문별 선정

### 매달 2차례 전문가 강좌도

을 함께한다는 내용이다.

작가는 ‘예쁜 유리잔처럼 빛나던 삶’이 한순간 깨져 버린 사람들의 일상을 그려 낸다. 등장인물들을 3인칭으로 부르는 독특한 화법, 한 발짝 떨어져 심리를 유머러스하게 표현한 묘사는 이야기를 한층 개성적으로 풀어낸다.

올해의 책 청소년 부문은 손원평 작가의 ‘아몬드’(창비)가 뽑혔다. ‘공감 불능 사회에 차가움을 녹이는 아몬드’라는 평처럼 이 시대에 울림을 주는 소설이다. 주인공인 열여섯 살 소년 선운재는 ‘감정 표현 불능증’을 앓고 있다. ‘아몬드’라 불리는 편도체가 작아 분노도 공포도 잘 느끼지 못한다. 엄마와 할머니의 지극한 사랑 덕에 별 탈 없이 지냈지만, 크리스마스이브이던 열여섯 번째 생일날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나 가족을 잃는다.

공선옥 작가는 추천사에서 “긴 겨울의 끝에 봄이 온다. 봄이면 식물이 자라듯 감정도 자라듯, 감정이 자라면 세상이 자랄 것이다. 이 글을 읽는 동안 가슴이 내내 두근거렸다”고 평했다.

일반인 문학 부문은 최은영 작가의 ‘쇼코의 미소’(문학동네)도 눈길을 끄는 책이다. 소설은 서로 다른 국적과 언어를 가진 두 인물이 만나 성장의 문턱

을 통과해가는 과정을 그려낸다.

지방 소읍의 고교에 다니는 소유는 교환학생 자격으로 온 일본인 쇼코를 알게 된다. 이질감 탓에 소유는 쇼코의 미소에 묘한 거리감을 느낀다. 이는 낯선 타인과 조우한 이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핵심은 어떤 식으로 ‘쇼코의 미소’가 변주되느냐에 있다. 저자는 모든 것을 다 안다는 사실이 타인에 대한 이해를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한다.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자신과는 전혀 다른 타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이해의 가능성도 열린다는 것이다.

올해는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는 의미있는 해다. 도서관은 자체적으로 황년년의 ‘전라도, 촌스러움의 미학’(형성B일체)을 추천했다. 저자는 전라도의 촌스러움을 ‘수수함, 함결같음, 웅숭깊음, 검소함, 인정미’라고 규정하고 이를 맛깔스럽게 풀어낸다.

한편 도서관(무안군 삼양읍 소재)은 올해 연간 20회 도민강좌를 계획하고 있다. 매월 둘째, 넷째, 주 목요일 오후 7시 다양한 주제로 전문가를 초청해 진행한다. 또한 원거리 지역민에게도 인문학 소양 함양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군단위로 찾아가는 도민강좌를 개최한다. 5월 24일 진도 국악교, 6월 12일 곡성 옥과교교 예정돼 있다.

또 책 읽는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도립도서관 이용 회원들의 1회당 도서 대출 권수를 5권에서 10권으로, 도서왕과 책읽는 가족, 독서동아리 회원 등 우수 회원에게는 10권에서 15권으로 늘리기로 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원불교 광주교당 17일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 발대식

국내 7대 종단의 평신도들의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원불교 광주대교구는 오는 17일 오후 1시 원불교 광주교당(광주시 동구 예술의 거리)에서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 발대식을 개최한다.

이번 발대식은 원불교 광주전남교구 재가, 출가 대표 300여명과 운장현 광주시장, 이개호 국회의원, 김성근 ACRP 명예회장(국회 사무총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장덕훈 원불교 광주전남교구장, 원불교 재가단체장(봉공회, 여성회, 청년회, 청년회)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은 자신의 변화를 추구하는 세신운동으로, 우리 사회에 새로운 변화의 기운을 불어넣어주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천주교의 제안으로 지난해 7대 종단 평신도 단체들이 이웃 종교 상호간의 이해와 화합은 물론 종교인단체가 살아가는 의미에 초점을 두고 있다.

원불교에서는 교단의 협력 하에 봉공회, 여성회, 청년회, 청년회 등의 4개 재가단체로 ‘원불교 재가 단체협의회’를 구성, 공동회장 4인중 대표회장으로 중앙봉공회장을 선임했다. 특히 원불교에서는 ‘감·사·잘·함’(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잘했어요. 함께

해요)을 운동 강령으로 정해 교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장덕훈 광주전남교구장은 미리 배포한 격려사에서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은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깨어있는 사람들의 의미있는 출발”이라며 “나부터 실천하여 명실공히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는 운동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이 운동은 종교가 앞장서 이 사회 모든 구성원이 각자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기 성찰과 변화를 통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의미가 있으며, 나아가 종교 상호간 이해와 협력으로 행복한 세계를 개척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연극 ‘아버지와 나와 흥매와’ 공연 모습.

## 극단 청춘 ‘...흥매와’ 광주연극제 작품상 등 3관왕

### 대한민국연극제 광주 대표 참여

제 32회 광주연극제에서 극단 청춘의 ‘아버지와 나와 흥매와’가 최우수작품상을 수상했다.

광주연극협회가 지난 3일부터 11일까지 광주연극제 소극장에서 개최한 이번 경연에서 청춘은 최우수 연기상(노희철), 신인 연기상(김민성)도 함께 받았다.

최우수작품상 수상팀인 극단 청춘은 오는 6월 15일부터 7월 3일까지 대전에서 열리는 제 3회 대한민국연극제에 광주 대표팀으로 출전한다.

‘아버지와 나와 흥매와’는 간접 판정을 받고 죽은 앞둔 아버지와 그런 아버지를 돌보는 어머니, 연극인 둘째 아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작품이다.

그밖에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최우수 연기상=임홍석(극단 DIC ‘피는 꽃 흐르는 물이로세’) ▲연출상=김민호(극단 시민 ‘조용한 세상’) ▲무대미술상=이현(극단 시민 ‘조용한 세상’) ▲신인연기상=김정준(극단 까치날 ‘표\_신하가 황제에게 바치는 글’) 조혜숙(극단 진달래피네 ‘옥새인가, 옥쇄인가’)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 광주콘텐츠코리아랩 ‘놀라운 상상력’ 한자리에

### 13일~14일 50여종 쇼케이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이정현)은 광주콘텐츠코리아랩 2차 년도 사업성과 공유를 위한 전시 쇼케이스를 13~14일 이틀간 광주영상복합문화관 1층에서 개최한다.

이번 쇼케이스는 3기 창작자들(G.Creator)의 제작 시제품 전시, 2기 G.Startup(스타트업) IR Day 피칭 스테이지, 광주콘텐츠코리아랩의 창작 공간인 오픈랩 개소식으로 진행된다.

결과물 전시회에는 3기 G.Creator 26개팀, 2기 G.Startup 21개팀, 융합선도과제 1개팀이 제작한 메이커스 콘텐츠, 영상 콘텐츠, VR 및 융복합 콘텐츠 등 50여점을 만날 수 있다.

14일에는 마그나인베스트먼트 정명 이사의 ‘스타트업 투자사례와 방향’에 대한 기초발제

를 시작으로 우수 스타트업을 선정하는 IR Day 피칭스테이지를 개최한다. IR Day 피칭 스테이지는 2기 G.Startup 대상으로 마그나인베스트먼트, 벤처스퀘어, 더벤처스, 대교인베스트먼트 등 투자자의 심사를 통해 우수 스타트업을 선정, 내년 사업에서 해외벤처마케팅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다.

그밖에 지역 콘텐츠 창작자들을 위한 네트워킹 파티형식으로 진행되는 오픈랩(영상복합문화관 1층) 개소식에서는 ‘여기는 오아시스야’(대표 오유연)의 음악콘텐츠와 ‘오픈클래식’(대표 양은혜)의 바이올린 연주 등의 공연이 펼쳐진다.

광주콘텐츠코리아랩 홈페이지(gckl.kr) 참고. 문의 062-350-934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양반다리’ ‘기반하다’ ‘배춧잎’도 이제 표준어

한쪽 다리를 오그리고 다른 쪽 다리는 포개어 앉는 자세를 ‘양반다리’라고 하지만 표준어로 쓸 수 없었다. 표준어는 ‘책상다리’였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양반다리’를 표준어로 쓸 수 있게 됐다.

국립국어원은 현재 사용하는 말의 의미와 용법이 다른 것들을 바로잡고 표제어를 추가·삭제한 2017년 4분기 표준국어대사전 수정 내용 30건을 최근 발표했다.

‘양반다리’ 외에도 ‘기반하다’, ‘배춧잎’, ‘금쪽같이’, ‘합격점’ 등도 이번에 표준어에 포함됐다. 원래 ‘기반하다’는 표준어가 아니어서 ‘기반을 두다’라는 형태로 적어왔다. 그러나 이제는 ‘실화에 기반한 영화’라는 말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식상하다’에는 ‘일이나 사물이 되풀이되어 질리다’, ‘배다’에는 ‘이로 음식 따위를 끊거나 자르다’라는 뜻이 추가됐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키농샤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 2018년 3월호

2월 28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 특집 폐교들 깨어나다

- 공연 아지트 작은 박물관 등 폐교들의 행복한 변신  
- 아버지 뜻 이어 폐교에 피운 예술꽃, 고흥 남포미술관  
- 정부, 삶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 5개년 계획 마련

## 하나된 열정, 눈처럼 빛났다

기하·사진으로 되돌아본 2018평창동계올림픽

## 동네 책방에 빠지다-책방별곡

서점의 안목과 단골들의 리뷰로 성장한 영국 독립서점 돈트북스

노중운의 꿈의 여행중 그림 같은 풍경을 담아내다 프랑스 프랑방스

여행이 만난 이 사람

파리생활 후 광주 활동 시작한 패션디자이너 황미나  
고교, 군대, 프랑투캬 함께 KIA철정 임기영, 김운동

## 매망 초대석

### 광주시향상임지휘자 김홍재

“지휘는 감동의 순간을 창조하는 것”

기획-광주올림픽 다시보기(3) 푸른길 옆 푸리

패션의 생태-문화적 부활 촉매 역할

문장이 숨 쉬는 문학관을 찾아서(5)

문학으로 시대의 아픔 겨는 저항시인의 자취

조태일시문학관

정문수의 위대한 예술가들의 저항과 선택(9)

진실애 '충분히 가까워' 다가간 카메라, 카파, 닉트웨이

트렌드 따라잡기(4)

성공 요인 배워 도약의 시간 열자

디지털 허기 채우는 아날로그 문방구

새봄 이야기 '인도어 가드닝'으로 반려식물과 함께 싱그러운 봄맞이

우주의 신비 활짝 열린 고흥 高興

맑게 개인 감성 체험